

## 오일허브코리아여수와 ‘희망하우스 28호’ 준공

여수시 모도동 한부모가정에 새 보금자리… 민간 협력으로 주거환경 전면 개선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상무이사 나용철)와 함께 모도동 한부모가정을 위한 ‘희망하우스 28호’를 준공하고 지난 17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나용철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상무이사,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민간 후원처와 협력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총 4억 4천여만 원의 후원을 받아 희망하우스 28곳을 탄생시켰다.

이번 ‘희망하우스 28호’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중·고등학생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모도동의 한 가정으로, 화장실 사용 불편, 천장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배관·화장실 공사, 도배·장판·창호 교체, 싱크대 교체, 내·외벽 도색, 치마 보수, 전선 정비 등 전면적인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나용철 상무이사는 “가족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

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희망하우스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라며 “따뜻함이 더해진 희망하우스에서 더욱 빛나는 일상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네 차례 희망하우스를 후원했으며, 2018년부터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우덕현 기자

## 종량제봉투 주문부터 배송까지 통합관리시스템

남원 지정 판매소 온라인 주문, 카드결제 서비스 확대

남원시는 종량제봉투의 재고·주문·판매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지정판매소 대상 온라인 주문 및 카드결제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고 관리·주문 접수·배송 업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종량제봉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재정 집행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전화 주문에 더해 PC·모바일 기반 인터넷 주문과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지정판매소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주문·결제 가능해져 판매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려는 지정판매소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시스템을 사용하면 된다.

남원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9월까지 동 지역 판매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온라인 주문 절차를 안내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종량제봉투 구매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체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시스템이 판매소의 편리한 주문·결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유통

구조 정착과 투명한 예산 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신관사도부임행사 공연과 전통혼례체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신관사도부임행사 공연은 취타대를 선두로 기수단, 사또와 군관, 육방이 등장해 재치 있는 재담과 관객 참여형 연출을 선보이는 남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다.

전통혼례체험은 우리 고유의 혼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혼례단 퍼레이드와 전통 의식 절차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승민 기자

##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인근지역 재정 대책 빠져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시행에 앞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원전동맹 협의회장)가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자체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전국원전지역동맹은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데 주민동의 등 실질적인 주민수용성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조래할 위험이 크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주변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km로 한정하는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고 성토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국제적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더해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이 일부 원전 소재지 외에도 분배되기 시작되었지만, 고창·부안·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원전인근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 순창군,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재난 대응 체계 강화해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순창’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됐다.

협약식에서는 순창군과 유관기관이 재난 대응 공동체계를 공식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의 공동 대응,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 확립, 대규모 재난 시 자원과 장비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열린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소방, 경찰, 보건, 교육, 민간 전문가 등 각 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석해 최근 국내의 재난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향후 추진해야 할 안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 강화와 함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안), 순창장류축제 및 떡볶이 페스타 안전관리 계획 등 주요 안전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최영일 순창군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협약과 회의를 계기로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순창을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9월 20일부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순창展’을 섬진강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5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서예 행사로, 순창에서는 지역 서예의 정체성과 흐름을 드러내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순창 서예의 계보와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서예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승민 기자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전북자치도-전북은행 배회감지기 1,000대(3억5천만 원) 기탁…누적 2천여 대 보급



순목 위 작은 기기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큰 안심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을 위해 총 3억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2023년 400대(1억1,800만 원), 2024년 625대(2억 원)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배회감지기 보급을 후원하며 도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적 기탁액은 2,000여 대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구매·배포 및 사후관리를 맡아 실종 위험이 있는 도내 치매 어르신과 인지저하자들에게 순차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는 스마트태그를 추가 도입해 요양시설 및 발달장애인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순목시계형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이 탑재돼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아울러, 전북도는 실종노인 예방과 조기 귀가를 돕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13,019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2,020건)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비를 기부한 전북은행에 감사하다”며, “치매는 개인의 질병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로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치매센터 등과 협력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과 실종 찾기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공연을 열어 치매 예방

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도내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시·군 보건소,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을 앞두고, ‘퇴원 후 지역사회로·돌봄통합과 책임의료기관의 연결’을 주제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연계사업의 정책 방향, 전북도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 강연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섭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공공보건의료 정책 동향’을 주제로 최근 정책 변화와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1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 과제와 정책 방향(재)돌봄과미래 변재관 정책위원장, ▲전주시 돌봄 통합 추진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별 퇴원환자 연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패널 토의에서 의료·돌봄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상호 기자

## 전남 최초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 달성!

전년 대비 1.8배 증가, 청정 고흥 우수 답례품 효과 입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많은 분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 전남 최초 10억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편리한 절차, 확실한 혜택, 투명한 집행으로 보답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

고흥군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연말 목표인 20억 원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지정기부 확대와 기업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해 신뢰와 참여의 선순환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덕현 기자

## 광주시 AI 기술 활용해 랜섬웨어 공격 막아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해 사이버보안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기관 파급 효과,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보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AI 기반 지능형 보안관리 시스템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보안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업무용 PC 데이터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으며, 기존 보안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 7종까지 인공지능(AI)이 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스템 도입 효과도 뚜렷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3배 증가했다.

위협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소요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다.

시는 현재 인공지능(AI) 보안관계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올해 8월 기준 악성코드 3575건, 서비스거부(DDoS) 1만4046건 등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 100% 대응했다.

특히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는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망에 대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이병철 실장은 “행정정보 자산,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AI 보안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권일 기자